

모든 힘을 집중하여 다음해농사차비를 힘있게

서해별방농촌에서 편일 새로운 혁신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서해별방농촌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수백만 t의 유기질비료를 더 생산하였다. 쌀로써 당을 받을 한마음으로 분발해나선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그 기세로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모판자제 준비, 농기계수리, 물길가시기 등 당면한 농사차비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인민들의 심리상태가 흥성거리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사업이 잘 꺾여나갈 수 있습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의 맹판 날씨도 마다하지 않고 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뜻을 해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서해별방농촌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다음해 농사차비에 한사합같이 펼쳐나섰다.

농촌당조직들에서는 농사차비에서 제일 힘이 많이 드는 거름생산과 영농자재 확보, 거름실어내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직적치사를 짜고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세우신 본보기단위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기발을 들었다.

뜻깊은 올해 경에 해는 장군님을 농장에 모시었던 크나큰 자랑을 안고 펼쳐나선

수백만 t의 유기질비료를 더 생산

서해별방농촌 일군들과 농장원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벌써 흙보산비료원료를 100% 마련하여 놓고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태천군 은홍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다음해 농업생산에서 일대 양상을 일으킬 높은 목표를 세우고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서 본매를 보이고 있다. 현지에 나간 일군들은 대담하게 작전하고 전투지휘를 능동적으로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더욱 높이도록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풍천군 신안협동농장, 제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도 다음해 농사차비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흙보산비료 생산을 비롯한 당면한 영농전투를 힘있게 조직전개하여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본보기단위들의 모범을 따라 황해남도화평군남포시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기세를 올리고 있다. 도안의 농장들마다에서 거름원천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새차게 타고르고 있다.

신천군, 안악군, 제령군의 일군들은 거름원천이 제한되어있는 실정에 맞게 개바닥흙을 파내어 거름으로 리용하기 위한 특이 큰 작전을 펼쳐고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다. 들끓는 전투장으로 나가 일손을 잠은

농장일군들은 곡뭍으로 얻어붙은 개바닥흙을 파내면서 실천적 모범을 보이고 있다.

문덕군, 평원군을 비롯한 열두살촌리별과 온천군, 강서구역안의 농장원들도 농사차비에 편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작업반, 본조들은 물론 개인세대들에서도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올해농사경험에 기초하여 휴지에 력량을 집중하고 생활활성비생산과 모판자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원군과 황해북도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농사차비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도안의



다음해 농사차비전투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섰다. —은원군 마두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농촌에서는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사업을 통해 크게 작전하고 내밀고 있다. 풍천군, 태천군, 운천군, 박천군, 영주군을 비롯한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는 다음해에 기어 필요한 거름을 안아올 드는 열의를 안고 펼쳐나선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힘찬 투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사리원시, 연탄군, 립산군, 곡산군의 농장원들은

매일 목표를 높이 세우고 포전들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부침방의 지역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농장들에서는 거름생산에 큰 힘을 넣으면서 모판자제와 바림막이바지여기, 소농기구 준비를 따라세워 다음해 맹판 모판자제 준비를 미리부터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인민들의 심리상태가 흥성거리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사업이 잘 꺾여나갈 수 있습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의 맹판 날씨도 마다하지 않고 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뜻을 해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서해별방농촌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다음해 농사차비에 한사합같이 펼쳐나섰다.

농촌당조직들에서는 농사차비에서 제일 힘이 많이 드는 거름생산과 영농자재 확보, 거름실어내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직적치사를 짜고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세우신 본보기단위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기발을 들었다.

뜻깊은 올해 경에 해는 장군님을 농장에 모시었던 크나큰 자랑을 안고 펼쳐나선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농사차비를 힘있게

자강도 립업 관리국에서

올해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자강도립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사회주의건설장전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줄 불타는 열의로

《림업부에서는 겨울철 통나무생산에 대한 임지를 잘 정하고 미리부터 생산준비를 실속있게 하며 겨울철에 모든 노력과 설비를 통나무생산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관리국의 일군들은 겨울철기간에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의 80% 이상을 수행할 때만 목표를 내리고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관리국적으로 100여km의 자동차길, 120km의 트랙토르길, 40여km의 소나무길을 비롯한 생산준비건설이 진행되었고 지형조건이 유리한 산관들마다에 기를 전 쪼지 않으면서도 사이나르기를 할수 있는 130여km의 통나무길을 냈다.

관리국에서는 립산로동자들을 위한 송신반, 송풍복 등 함께 다이야, 크랑크축 등 1천여점에 달하는 립전기부속품, 쇠바늘을 비롯한 수많은 통나무생산자재들을 마련하여 립산사업소들과 경목생산사업소들에 보내주었다.

림산사업소, 경목생산사업소들을 맡고 내려간 관리국의 당, 행정일군들은 산관들의 산지합숙에서 로동자들과 한가마뱀을 먹으며 겨울철통나무생산조직과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관리국일군들의 빈틈없는 조직사업과 힘있는 화선적지사에 의하여 립산사업소들과 경목생산사업소들의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에서 자랑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강계림산사업소의 통나무생산전투장에서는 남마다 새로운 위훈이 창조되고 있다. 지배인은 비롯한 강계림산사업소의 일군들은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리고 작업소들의 산관들에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위훈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사업소의 생산소대들에서는 나무베기, 가지치기, 나무모기작업을 리용하여 리용하는 한편 눈이 많이 내린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곳곳에 통나무길을 내어 많은 통나무를 끌어내리고 있다.

평원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산지통나무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통나무생산에서 온 나라에 소문이 난 동진경목생산사업소 3대혁명붉은기시약사업소의 생산소대에서도 매일 통나무베기에 열을 실적을 내고 있다.

회천경목생산사업소, 위원, 화령림산사업소에서도 산지통나무생산전투에 계속 뛰어들고 있다.

관리국의 일군들은 립산사업소, 경목생산사업소들의 산지통나무생산정형을 매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앞선 단위들의 좋은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특약기자 동세웅

빈틈없이 작전하고 내밀자

지금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앞에는 다음해 농사차비를 다그쳐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내세워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준비를 잘하는것은 알곡생산을 늘이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한해 농사의 성과여부는 농사차비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크게 좌우된다. 각기 농촌들에서는 다음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작전하고 완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농사차비에서 기본은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는것이다. 논밭에 거름을 많이 내어 땅을 잘 기고 지력을 높일수 있으며 안전하게 높은 수확을 낼수 있다. 유기질비료는 골 썰피미다.

협동농장에서 유기질비료생산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부식토와 리산 등 여러가지 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흙보산비료와 유기질복합비료, 생활활성퇴비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고리형순환생산체제를 철저히 확립하여 농산과 축산을 밀접히 배합하고 거름생산은 더욱 늘여야 한다. 도시거름도 적극 실어내어야 한다. 거름생산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 그 실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로력과 운반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한 거름을 논밭에 제때에 실어내야 한다.

모판자제 준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각기 협동농장들에서는 바림막이바지와 모판나베기기를 다그치며 비닐바닥과 활창대, 팔창도 더 넓히며 마련하여야 한다. 휴지를 증대없이 내밀어 모판복토제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농사차비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각기 농촌들에서는 당의 총지령명령을 받들고 자기 지방의 기후와 토양의 특성에 맞는 다수확물종의 종자를 넉넉히 확보하며 그 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잘해야 한다.

농기계수리정비와 중수농기구에 대한 투자를 늘여야 한다. 각기 트랙토르부속품공급장에서는 대고조의 불길같이 생산을 정상화하여 농촌에 더 많은 농기계부속품을 보내주어야 한다. 농기계작업소들에서는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대용량도 적극 리용하여 겨울철 농기계수리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트랙토르와 모래는 거름을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를 알뜰히 수리정비하여야 한다. 달구지와 호미, 단 등 중수농기구들도 충분히 마련해놓아야 한다.

농산물은 물자이다. 농촌들에서는 흐르는 물을 모조리 저수지들과 저수지에 잡아넣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세우며 판계시설들을 보수정비하고 물길들도 말끔히 가세내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일군들은 우리 농업의 현실과 세계 농업발전실태를 환히 꿰고 혁신적안목에서 다음해 농사차비에서 구체적으로 세우며 지필하고도 완변한 조직적사업과 농동적지휘, 실천적모범으로 다음해 농사차비를 박력있게 내밀어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공답게 당면한 농사차비에서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안고 한결같이 펼쳐나 다음해 농사차비를 전투적으로 다그쳐야 한다.

다음해 농사차비를 다그치면 서 농장일군들이 제일 중시한 것은 일정계획을 바르세우는 문제였다. 그것은 일정계획에 어떤 내용을 반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데 따라 다음해 농사차비의 성과가 좌우되기에따라였다.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면서 일 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뉘나뉘나뉘는 지역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유기질비료생산계획수행에 만 힘을 넣고 있었다.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면서 일 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뉘나뉘나뉘는 지역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유기질비료생산계획수행에 만 힘을 넣고 있었다.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면서 일 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뉘나뉘나뉘는 지역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유기질비료생산계획수행에 만 힘을 넣고 있었다.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면서 일 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뉘나뉘나뉘는 지역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유기질비료생산계획수행에 만 힘을 넣고 있었다.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면서 일 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뉘나뉘나뉘는 지역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유기질비료생산계획수행에 만 힘을 넣고 있었다.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면서 일 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뉘나뉘나뉘는 지역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유기질비료생산계획수행에 만 힘을 넣고 있었다.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면서 일 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뉘나뉘나뉘는 지역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유기질비료생산계획수행에 만 힘을 넣고 있었다.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면서 일 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뉘나뉘나뉘는 지역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유기질비료생산계획수행에 만 힘을 넣고 있었다.

일정계획을 잘 세워놓고

수안군 수덕협동농장에서

수안군 수덕협동농장이 다음해 농사차비로 들끓고 있다. 포전머리마다 높이 쌓인 거름더미들과 번듯하게 정리된 하천들, 작업반들의 소석회더미들은 일정계획을 잘 세워놓고 다음해 농사차비를 이약하게 해 온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노력이 깃들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해놓았다가 불씨불림을 제철에 약다며 빼제겨야 합니다.》

다음해 농사차비를 다그치면 서 농장일군들이 제일 중시한 것은 일정계획을 바르세우는 문제였다. 그것은 일정계획에 어떤 내용을 반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데 따라 다음해 농사차비의 성과가 좌우되기에따라였다.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면서 일 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뉘나뉘나뉘는 지역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유기질비료생산계획수행에 만 힘을 넣고 있었다.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면서 일 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뉘나뉘나뉘는 지역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유기질비료생산계획수행에 만 힘을 넣고 있었다.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면서 일 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뉘나뉘나뉘는 지역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유기질비료생산계획수행에 만 힘을 넣고 있었다.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면서 일 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뉘나뉘나뉘는 지역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유기질비료생산계획수행에 만 힘을 넣고 있었다.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면서 일 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뉘나뉘나뉘는 지역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유기질비료생산계획수행에 만 힘을 넣고 있었다.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면서 일 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뉘나뉘나뉘는 지역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유기질비료생산계획수행에 만 힘을 넣고 있었다.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면서 일 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뉘나뉘나뉘는 지역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유기질비료생산계획수행에 만 힘을 넣고 있었다.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면서 일 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뉘나뉘나뉘는 지역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유기질비료생산계획수행에 만 힘을 넣고 있었다.

하지만 한해농사과정을 골똘히 돌이켜본 농장일군들은 소석회생산을 앞세우기 위한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작업반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토지를 개량하는 데서 소석회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과학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깊이 인식시키면서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제 1 작업반원들이 소석회생산에서 앞장서서 선진적모범을 보이고 있다. 원로원천 건설한 이곳 작업반원들은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시작부터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작업반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은 작업반원들에게 소석회기 병충해의 준비를 갖추고 시작부터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작업반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은 작업반원들에게 소석회기 병충해의 준비를 갖추고 시작부터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다른 작업반원들도 성수가 나서 펼쳐나갔다. 작업반원들은 소석회생산을 일정계획대로 내밀기 위한 방도를 하나를 원하고 열광을 앞세워 보장하는데서 찾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여 남마다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지식과 기술로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할 나뭇잎이 열매가 될 때까지

하얀 눈송이들이 교정의 하늘가를 짙게 채우며 사연같은 교사의 전라도 서판, 구내길에 소복이 내리쬐고 있다. 눈속에 단정된 함흥수리동력대학 교정은 볼수록 아름답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해 12월의 첫눈이 류달리 이채롭게 느껴지고 뜨거운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정겨운 장군님을 언젠가 대학에 오실까 손꼽아 기다리며 덩치는 교사와 전라도서판도 짙은 기간에 홀로롭게 일떠세우고 갖가지 파알나무도 정성다해 심고 가꾸어온 이들이었다. 하지만 교정의 사파꽃이 활짝 피어던 따스한 봄 계절도 아니고 탐스러운 같이 주렁주렁 실룩 실룩하던 가을철도 아닌 추운 겨울날 정겨운 장군님께서 대학을 찾아주시실지야 어찌 알았으랴. 사람들에게 대학에 갖는 정겨운 장군님의 사랑과 인정을 이야기하는 학장 김영배동무의 가슴도, 신념의 맹세를 다지는 서병화, 림을 실동무부 비롯한 원사, 교수, 박사들의 눈곱도 젖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함흥수리동력대학에 영웅들과 숨은 공로자들이 많습디다.》

공로자들이 많은 대학이라고 하시며

연혁소개실과 교육과학전시관을 돌아보시면서 대학이 교육과학사업과 교육환경, 교육조건개선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로해하신 정겨운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말기에 의하여 창립된 수리동력기술인재양성기지인 함흥수리동력대학은 지난 기간 세계적 수준의 시해갑문과 대동강발전소의 대개도건설을 비롯한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적 조구상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앞장서서 위훈을 우리 당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분에 넘친 치하의 말씀을 주시었다. 정겨운 장군님께서 영웅들과 신군사대 공로자들, 교수, 박사들의 사진도 일일이 보아주시면서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교직원들은 일련단심 주체혁명위업을 과학과 기술로 받들어온 미더운 지식인들이라고, 이런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지식인들이 교육전선을 굳건히 지켜서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창창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대학책임일군들의 가슴은 세찬 격정으로 끓어번지었다. 선군혁명명도의 길에서 대학을 잊지 않고 우리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수리동력대학이 함흥에 있는데 그 대학 과학기술력량이 대단하다고 크나큰 믿음도 안

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겨 놓고 최첨단을 돌파하여 교육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이다. 성상의 첫걸음을 떼어 주고 앞날을 촉망해주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은 이런 심장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겠다. 함흥수리동력대학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앞으로 영연히 영웅들과 선군시대 공로자들이 많은 대학, 과학기술력량이 대단한 대학으로 불려주시는 정겨운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에 간직하고 자력갱생하는 대학의 영예를 계속 떨치며 자기 발전의 열광스러운 로정에 더욱 자랑찬 교육과학연구성과를 아로새겨갈것이다. 글 쓴사기자 김은남 사진 김진명

라 진 려 관 에 서

라진러판에는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찾아오셔서 봉사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불멸의 업적이 빛나고 있다. 러판의 봉사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해나갈 한마음으로 봉사활동을 감행하여 러판을 찾는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봉사성은 봉사일군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품성입니다.》 정겨운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은 이곳 일군들은 봉사자들이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의 총부이라는 높은 자각과 영예감을 안고 근로자들의 생활상편의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이고 있다. 지배인 로선복, 당세포 비서 방연화동무들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러판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러판방문과 식당 등 내부를 정성적으로 알뜰하게 꾸며 손님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쾌적한 봉사활동을 벌여나가기로 대중의 앞장에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 러판에서는 자체로 식료품가공기도 꾸리고 손님들을 위한 갖가지 부식 가공을 잘하여 봉사활동을 더욱 개선하고 있다. 러판의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현지지도단위에서 일하는 남다른 영예와 긍지를 안고 봉사활동과 봉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명흥속

인민의 봉사사원 영예와 자랑

지칠 줄 모르는 정열가

구장군 협동동농장 제6작업반 반장 허영태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에게는 말 잘하는 일꾼보다도 실천력이 강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회주의 농촌으로 자린치출한 부모의 뒤를 이어 구장군 협동동농장에 제대배낭을 풀고 높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허영태동무는 무슨 일에서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다. 허영태동무는 작업반의 축산 토대로 훌륭히 꾸려졌으며 애국의 수레를 바쳐 모든 포진에 육두로 전진시켰다. 언젠가는 살을 에이는듯한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복 수백리까지 나가 되는 곳까지 가서 농기계부품을 해결해오기도 하였다. 바로 이런 정열가에게 나이든 60여대에 이르렀지만 운동장에 나서면 체육명수로, 무대에 오르면 명가수로 소문이 자자하다. 그의 가슴속에는 평범한 자기의 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높이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할 일념만이 짙다. 그의 가슴속에는 평범한 자기의 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높이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할 일념만이 짙다. 허영태동무는 말하듯 하였다. 어느 한 고려약공장으로 떠나는 김규락동무를 배대워주며 김순복동무는 말하였다. 《우리 인민이 바라는 강성대국은 모두가 위훈의 길을 함께 걸을 때 더 빨리 맞이할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 번영할 우리 조국의 미래를 가슴에 안고 바쁘게 사는 지배인의 마음이 담긴 말이였다. 공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진 능숙기는 김철과 홍남, 남송의 설비들에 비하면 너무도 작고 소박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강성대국의 때문에 남편처럼 들어서는 애국의 마음이 짙게 어려서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본사기자 방경찬

교육과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함흥수리동력대학 과학자들이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난 기간 대학은 수리동력기술인재양성기에 참으로 자랑찬 성과를 수많은 이룩하였다. 20여명의 영웅들과 60여명의 원사, 교수, 박사들을 배출한 대학에서는 수리동력부문의 제능있는 기술인재들을 수없이 키워냈을뿐 아니라 이 부문 과학기술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전력공업발전과 대자연개조사업,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대학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유능한 수리동력부문의 기술인재들을 키워내는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정겨운 기대를 높이 받들고 주체적인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왔다. 교원, 연구사들은 130여종의 교과서와 참고서들을 집필하고 교수에 구현하였으며 수많은 대매면적물품, 응용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육수준을 부단히 높였다. 또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20여개에 달하는 학과목들을 개척하고 30여개의 대매면적의 실과 원격강의실을 꾸렸으며 교육실현에 의의있는 190여종에 달하는 실험실습설비를 창안제작하고 3, 4차원설계실을 비롯한 첨단실습설비를 훌륭하게 꾸려 실험실습교육에서 전환을 일으켰다. 교원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이 확고히 서고 첨단교육방법탐구의 원바람이 일어난 속에 교육실현에 의의있는 과학기술자들이 수많은 메달을, 전국적인 범위의 과학기술전시회들과 과학기술발표회들과 수많은 높은 평가들에는 자랑찬 과학연구성과로 교육자의 삶을 빛내고 있는 이곳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의 불타는 총명과 열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직접적인 바위에 의하여 창립되고 백두산강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령도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자랑찬 로정을 걸어온 함흥수리동력대학은 교육사업의 모든 면에서 손색없는 주체적인 교육과학의 본보기단위로, 종합적인 수리동력기술인재양성기지로 튼튼히 꾸려졌다. 특파기자 박동석

앞선 교육방법을 적극 탐구하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육방법을 개선하는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입니다.》 부하장 김정환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외국어시청각실에 들어섰다. 시청각조종기와 컴퓨터를 비롯한 설비들이 이른바 우습겁과 금메달을 비롯하여 730여점에 달하는 과학기술서적들과 수많은 메달을, 전국적인 범위의 과학기술전시회들과 과학기술발표회들과 수많은 높은 평가들에는 자랑찬 과학연구성과로 교육자의 삶을 빛내고 있는 이곳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의 불타는 총명과 열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직접적인 바위에 의하여 창립되고 백두산강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령도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자랑찬 로정을 걸어온 함흥수리동력대학은 교육사업의 모든 면에서 손색없는 주체적인 교육과학의 본보기단위로, 종합적인 수리동력기술인재양성기지로 튼튼히 꾸려졌다. 특파기자 박동석

효능 높은 약들을 개발

천연물약품연구소에서 천연물약품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공동실시의 전투적연구를 벌이고 올해전도를 빛나게 계속하기 위해 과학연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당의 풀에서 키워온 창조적พลัง과 지혜와 재능을 가장 많이 펼쳐야 할 때입니다.》 여러가지 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초들을 리용하여 효능 높은 고려약들을 많이 생산하는 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실장 강동국동무를 비롯한 약품자연연구집단은 전국의 여러 지역의 협조한 산밭을 누비며 약용식물자원을 조사하고 식물을 채취한데 기초하여 그 기원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 연구사들은 항암작용도 하며 사람들의 병치료를 효능 높은 고려약들을 많이 찾아냈다. 연구사들인 김승철, 김명실동무들은 불타는 창조적열정으로 신장을 쬐며 미나리과 고려약에 대한 형태해부특성을 연구하였으며 미나리과에 속하는 유사한 식물들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식별할수 있게 하는 데서 전승을 이룩하였다. 교수, 박사인 임두순, 실장 서병화동무를 비롯한 약리연구집단은 포도씨에 있는 항산화활성이 비라닌과 E에 비할바에 이 높은 프로안토시아닌에 대한 약리작용을 임상검토를 통하여 확증하였다. 임상검토에 의하면 프로안토시아닌은 로인들의 노화를 방지하며 동맥경화를 막는 등 좋은 약효가 있다고 한다. 연구집단에서 이룩한 성과는 지난 시기 관심밖에 있던 포도씨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리용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 놓은것으로 된다. 실장 백동현, 연구사 송원진, 김경화, 조성일동무를 비롯한 약품자연연구집단은 자신성을 가지고 기세높이 막아오는 난관을 과학히 뚫고헤쳐고 리약제로 피부사상염을 치료할수 있게 하는데서 큰 결실을 내었다. 이들이 연구한데 의하면 치료방법이 간단하고 피부에 작용하는 지속시간이 오래 치료효과가 높다고 한다. 식물약품연구집단에서도 과학연구사업에서 실적을 올렸다. 실장 김명실동무를 비롯한 이곳 연구집단은 유행성출혈감기치료약을 만드는데서 나서는 원료를 생산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이 약과화합에서 이 사업을 적극 떠맡아주었다. 이들은 시집산원료를 우리 나라에 흔한 천연약재로 해결하였으며 용매를 쓰지 않고 우리 식으로 시집산을 분리 정제할수 있는 방법을 세웠다. 또한 현실조건에 맞게 시집산에 대한 분석법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확립하였다. 여기에 한진국, 정명현동무들의 고심어린 창조적사색과 탐구도 크게 깃들여졌다. 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실질적인 과학연구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기여하려는 열망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창조적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어가고 있다. 본사기자 오철훈

소중히 안고 사는 마음

신인주 고려약가공공장 지배인 김순복동무 약초화보, 공장개건 등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아픈날 과제였다. 그러나 그들은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전기를 적게 쓰면서 노동자가 훨씬 적게 쓰는 능숙기계에서 끝내내 성공하였다. 년간계획을 9월까지 훨씬 앞당겨 끝내면서도 자체의 힘으로 새로운 농축기를 만들어낸 60년 공장경영원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기대앞에 모였었다. ... 그때로부터 얼마후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 공장에서는 자기들이 애써 만들어낸 성과를 보고있는 새형의 농축기를 도안의 모든 고려약공장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김순복동무는 말하였다. 《우리 인민이 바라는 강성대국은 모두가 위훈의 길을 함께 걸을 때 더 빨리 맞이할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 번영할 우리 조국의 미래를 가슴에 안고 바쁘게 사는 지배인의 마음이 담긴 말이였다. 공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진 능숙기는 김철과 홍남, 남송의 설비들에 비하면 너무도 작고 소박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강성대국의 때문에 남편처럼 들어서는 애국의 마음이 짙게 어려서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본사기자 방경찬

현대 응급추천인 치료기

회령시제1인민병원에서 경추 증과 경추추간판변형증후군의 치료를 위한 현대응급추천인 치료기를 제안하였다. 이 치료기는 직류전동기와 감속장치, 고정물과 이동대가 달린 견인모자로 구성된

내화재료 결합제 - 씨 알론

자료에 의하면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금속공업부문에 있어서 절실히 요구되는 내화재료로서 사기제로인 씨알론을 결합제로 리용하고 있다. 씨알론은 1970년대 고온소재제로인 질화규소의 특성을 개선하고 소결온도를 낮추기 위한 연구과제에 발전한 새로운 비산화물계 고온소재로 있다. 씨알론이라는 이름은 규소, 알루미늄, 산소, 질소의 원소명들을 나란히 붙여만든것이다. 씨알론분말은 순도가 높은 규소와 알루미늄분말을 혼합한 다음 1500°C의 온도에서 질화시켜 만든다. 내화재료로서의 좋은 특성을 가지고있는 씨알론을 리용하기 위한 연구가 심화되는 과정에 씨알론결합제화합물이 개발되어 금속공업부문에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다. 현재 제철부문에서는 씨알론 결합제화합물과 씨알론결합 강유박을 주로 쓰고있다. 여러 나라에서 대형용광로들에 씨알론결합제화합물을 많이 리용하고 있다. 씨알론분말은 순도가 높은 규소와 알루미늄분말을 혼합

《고마운 품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존히 마련해준 그들이였습니다. 결혼상과 갖가지 가정용품들, 생활필수품들이 한가치라도 빠질세라 품을 적어가지고다니며 성의껏 마련해온 일군들... 감동을 금치 못하는 저를 보며 김명관동무는 《고마움의 인사는 우리 장군님께 드려야 합니다.》라고 조용히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평범한 저에게 차폐된 행복을 두고 아버지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신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가 얼마나 귀중한 행복의 요람인가를 가슴뜨겁게 감격하게 되었고 서로 돕고 위해주는 사랑의 향기가 차넘치는 우리의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새기였습니다. 그날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 노배루는 저의 가슴속에서는 이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나갈 결의가 불타올랐습니다. 동창군 부흥리 구 향심

백두의 천출위인을 모신 영광과 행복

남녘겨레의 가슴마다에는 백두의 천출위인이시며 탁월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차분히 차고있다.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이다.》

《김정일장군님은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세계제일이신 오늘날의 김일성주석이다.》

《김정일장군님을 령수로 모시어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려는 민족의 영광 만반에 자랑하자!》

이신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굳건히 이어져 민족의 긍지를 더해주고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전쟁도발책동이 날로 강화되고있는 오늘 무비의 당력과 필승의 전략으로 민족의 존엄을 빛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을 우리를 해원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다고 강의를 계속하여 이렇게 했다.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민족을 통일과 부흥으로 향도시키는 민족의 하늘입니다.》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일심전력을 다해 받들어나갈 때 민족의 통일일이 있고 장창한 패일이 있다.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님과 같이 천출위인을 민족의 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겨레의 대행운이다.》

김정일장군님만을 마음속에서 모시고 따를 때 우리의 승리가 있다.

김정일장군님을 따르는 여기에 진정한 애국의 길이 있다.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님과 같이 천출위인을 민족의 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겨레의 대행운이다.》

세상에 나라와 민족이 많지만 철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민족처럼 긍지높은 민족은 없다.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님과 같이 천출위인을 민족의 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겨레의 대행운이다.》

세상에 나라와 민족이 많지만 철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민족처럼 긍지높은 민족은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간직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의 밑바탕에는 희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정감과 신뢰의 정이 넘쳐흐르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종교계의 한 인사는 《미국이 거듭되는 전쟁소동을 선군의 힘으로 쳐갈기시며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김정일방위위원장은 정말 불의와 악을 쓰러뜨리는 정의의 상징이시요 평화주의의 화신이다. 이처럼 위대한 명장을 모신 이북민중, 아니 우리 겨레는 언젠가 이길것이다.》

나도 그분은 민족의 령수로 모신 민족의 구성원임을 자부

한다.》라고 자기의 걱정을 터놓았다.

남조선의 한 제야인사도 동료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늘에 태양이 하나이듯이 우리 민족에게도 민족의 태양, 민족의 령도자는 한분입니다. 비록 국로는 인공적으로 갈라져있어도 이남민중의 진정한 령도자라는 김정일장군님만이 있다.》

김정일장군님을 마음속에서 모시고 따르는 여기에 민족이 살고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 평화를 지키는 길이 있다.

이것은 력사의 소명이며 시대의 엄숙한 요청이다.

오직 이 길에서만 자주와 민족의 새봄이 도래될것이며 통일의 대문도 활짝 열리게 될것이다.

정말치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통일국가의 새 아침은 밝아오고야말것이다.》

그의 이 말은 열에 있던 사람들도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희세의 위인을 민족의 태양으로, 어머니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불태우듯는 비단 이들 뿐이 아니다.

한 력사 학자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산의 태고이런 밀림속 쿠를집에서 그것도 할일대전의 총성이 울

거꾸로 된 재판

보도된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이 며칠전 공화국을 방문하고 통일애국활동을 벌인 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목사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여 놓고 《보안법》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를 씌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는 파쇼적폭정을 감행하였다.

통일애국사업에 한몫한것이 죄로 되어 피고에게 앉는다는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슴에 대는 비극이 아닐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애국과 정의에 대한 애국주 부정의 거꾸로 된 재판이다.

누구나 인정하는바이지만 한상렬목사에게는 그 어떤 죄도 없다.

그는 6. 15 공동선언발표 10년을 맞으며 민족공동의 통일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다녀갔다. 한상렬목사는 평양방문의 70일간 북녘의 각계층 동료들과 만나 뜨거운 혈육의 정을 나누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의 지배와 침략책동,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방동을 반대배격하고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통일을 이룩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것은 6. 15 통일시대의 명맥을 잇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의로운 장거리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애국애족적인 소행이다.

이런 통일애국인사를 죄인으로 몰아 피고석에 앉히는것 자체가 통일과는 정반대로 민족반역의 죄를 지어주는 꼴이 아닐수 없다. 이것은 통째로 남조선보수매당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남조선파쇼정권은 그 무슨 《승인》을 운운하며 한상렬목사에게 《불법》, 《리직》의 감투를 씌웠다. 하지만 그가 평양방문의 결단을 내리자 어떤 안티체 한것은 과연 누구인가.

최근 따지면 6. 15 공동선언발표 10년을 맞으며 평양에서 진행하게 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가르막은 남조선당국에 있다. 6. 15 통일시대와 더불어 활기있게 진행되는 화해와 협력사업에 차분함을 내리치른 보수당 국가자들의 당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쓸수 없는 용납 못할 반통일죄악이다. 한지맥으로 잇닿은 북의 통일을 만나 화합과 통일을 주장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면서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구원하려고 자기의 한몸을 바쳐나선 그의 행동은 온 민족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다.

한상렬목사에 대한 탄압소통은 남조선보수매당의 중요한 반통일대결정책의 필연적산물이다. 목사에 대한 탄압소통은 단순히 그에 대한 탄압이라고만 볼수 없다. 그것은 북남관계개선을 반대하고 동족사이의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켜 불순한 총계를 실현하려는 용납 못할 책동이다.

최근 연평도포격사건과 그것을 계기로 감행된 피괴들의 광란적인 대결전쟁소통은 리명박매당이 북남사이의 대화와 평화, 관계개선을 의도한 한 판심이 없으며 오로지 정세를 최악으로 격화시켜 우리와 대결하고 북침전쟁을 실현할 계획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매당은 이번엔 한상렬목사에게 중형을 들먹이으로써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대한 저들의 부정적의견을 다시금 명백히 드러내보였다.

재판을 받고 처형되어야 할자들은 다음날인 통일애국에 등을 돌리고 동족대결과 북침전쟁행동에 미쳐달리려는 남조선보수매당이다. 우리 민족은 애국노, 반역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역적매당이 이번엔 《보안법》을 휘둘러 통일애국의 길을 걸은 한상렬목사를 재판정에 세웠지만 민족을 등진 역적무리들이 력사의 피고석에 꿇어앉을 날은 반드시 올것이다.

최근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남조선 각지에서 힘있게 울려나오는 이러한 격정어린 목소리들에는 천출 위인인 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우리 민족이야말로 세상이 가장 자랑 높은 민족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여과있다.

남녘겨레들은 어머니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되고 민족의 미래도 장창하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남조선의 어느 한 통일운동단체성원은 자기의 글에서 예로부터 인간은 의지할 마음의 기둥을 찾고 밝은 세상을 갈망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신 민족자주위업은 천출위인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령도자로 높이 모신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는 남녘인민들의 열렬한 호모의 마음은 한 대학교수의 심장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느낄수 있다.

그는 《민족의 운명과 령도자》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남민중이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민족의 령도자로 높이 호모해주시지 않고는 근저에는 어떤 확신이 깔려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시는 《민족의 수호자》, 《민중정신의 상징》, 《민중단합

의 구심》이라는 확신이라고 긍지를 넘쳐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였다.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님과 같이 천출위인을 민족의 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겨레의 대행운이다.》

김정일장군님만을 마음속에서 모시고 따를 때 우리의 승리가 있다.

김정일장군님을 따르는 여기에 진정한 애국의 길이 있다.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님과 같이 천출위인을 민족의 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겨레의 대행운이다.》

세상에 나라와 민족이 많지만 철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민족처럼 긍지높은 민족은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간직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의 밑바탕에는 희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정감과 신뢰의 정이 넘쳐흐르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종교계의 한 인사는 《미국이 거듭되는 전쟁소동을 선군의 힘으로 쳐갈기시며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김정일방위위원장은 정말 불의와 악을 쓰러뜨리는 정의의 상징이시요 평화주의의 화신이다. 이처럼 위대한 명장을 모신 이북민중, 아니 우리 겨레는 언젠가 이길것이다.》

나도 그분은 민족의 령수로 모신 민족의 구성원임을 자부

한다.》라고 자기의 걱정을 터놓았다.

남조선의 한 제야인사도 동료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늘에 태양이 하나이듯이 우리 민족에게도 민족의 태양, 민족의 령도자는 한분입니다. 비록 국로는 인공적으로 갈라져있어도 이남민중의 진정한 령도자라는 김정일장군님만이 있다.》

김정일장군님을 마음속에서 모시고 따르는 여기에 민족이 살고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 평화를 지키는 길이 있다.

이것은 력사의 소명이며 시대의 엄숙한 요청이다.

오직 이 길에서만 자주와 민족의 새봄이 도래될것이며 통일의 대문도 활짝 열리게 될것이다.

정말치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통일국가의 새 아침은 밝아오고야말것이다.》

그의 이 말은 열에 있던 사람들도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희세의 위인을 민족의 태양으로, 어머니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불태우듯는 비단 이들 뿐이 아니다.

한 력사 학자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산의 태고이런 밀림속 쿠를집에서 그것도 할일대전의 총성이 울

부치는 격정장에서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그자체가 그분이 천출위인이심을 절감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한 퇴역장성도 《이북의 강위력한 모습에 비친 김정일장군님의 군중정치미를 깊이 생각할 때, 회의의 명장을 모신 민족적행운을 가슴 뿌듯히 절감할것이다.》

그러면 위대한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맡길것을 모시고 있는것은 우리 겨레의 가장 큰 행운이고 무상의 영광이다.》라고 마음속진정을 토로하였다.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어 우리 민족이 받아안은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그렇듯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한 남녘겨레에게 민족의 어머니를 따르는 마음 그토록 열렬한것이고 조국통일에 대한 신념과 의지 또한 굳센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비록 암흑속에서 신음하고있지만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주시 민족의 태양, 통일의 구성이 계시어 자주통일과 민족의 대문도 활짝 열리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쟁의 길에 파카히 떨쳐나서고있다.

에 안되는 지역에서 벌어진 이 혼란에는 다련장로케트로프와 K-1》따로, 《F-15 K》 전투기 등 수많은 무기와 전쟁장비가 동원되었다. 호위함, 잠수함 등 10여척의 함선과 수많은 공중타격무기여 동원되었다. 문제는 피괴정권은 그 누구의 《잠수정침투》와 《극지도발》에 대응한다기 보다는 피괴정권 동원된, 대잠편, 함포사격편을 미친듯이 벌리었다. 이 전쟁연습에 대한 내외의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호진정권은 연평도포격사건이후 연기되었던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연평도사건》에 판계였다. 호진정권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덮어버리고자 했지만 피괴들의 이 해상훈련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계속 격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군사적도발이다.

남조선호진정권이 북침전쟁도발소통에 얼마나 환장이 되어 버렸고 있는지 지난 23일 경기도 포천에서 감행된 피괴군의 함포사격훈련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이날 피괴군부대는 육군과 공군의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최대규모의 함포사격훈련을 벌여놓았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0km정도밖

를 북침전쟁도발에 더욱 부추기는 특종호진정권이 있다. 바로 남조선전력이다. 얼마전 리명박연대는 군사분계선일대의 피괴군부대에 나타나 생인경으로 북쪽을 노려보면서 《대반격을 가하라.》느니, 《가차없이 대응하라.》느니 하는 무분별한 전쟁소통을 늘어놓았다. 이것만 보아도 남조선전력자가 북침전쟁에 얼마나 환장한지가를 잘 알수 있다.

오죽했으면 어느 한 외국언론이 남조선전력자를 《화약통유에 앉은 대총명》이라고 아우렷했는가.

호진정권에 조성된 연평도는 물론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집중적으로 감행되고있는 피괴들의 광란적인 도발소통들은 우리의 군사적대응을 유도하고 그것을 구실로 전면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책동들이다.

사실들은 남조선피괴들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의도적으로 계속 격화시키면서 북침전쟁을 도발하려고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피괴들이 군사적도발소통에 발악적으로 매달릴수록 평화파괴자, 도발자로서의 범죄적 정세는 전제없이 더욱 날달이 드러나게 될것이다.

최근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의장과 사무처장에게 경찰에 출두할것을 강박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공안세력이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전쟁책동을 일삼는 《정권》의 반통일적행위를 비판한 문평에 대해 《북의 문조와 유사하다.》, 《사전에 북과 모의한다.》이라고 몰아대며 못해 결성기념행사까지 《북을 찬양, 고무하는 모임》으로 걸어 탄압하고있다.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무분별하게 감행되는 전쟁소통

동에서 북침을 노린 해상훈련을 광란적으로 감행하였다. 남조선강원도의 거진항 동쪽에 발진한 포사격훈련을 강행하였다. 피괴들의 이 연연도포사격훈련이 엄중한 반공화국도발행위이라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피괴정권은 그 누구의 《잠수정침투》와 《극지도발》에 대응한다기 보다는 피괴정권 동원된, 대잠편, 함포사격편을 미친듯이 벌리었다. 이 전쟁연습에 대한 내외의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호진정권은 연평도포격사건이후 연기되었던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연평도사건》에 판계였다. 호진정권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덮어버리고자 했지만 피괴들의 이 해상훈련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계속 격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군사적도발이다.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난

《절세의 위인을 모신 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김일성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뜻있는 사변들로 가득찬 올해에 위대한 선군명장 김일성동지를 우리르는 만민의 칭송열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 구바내각 수상, 요르단국왕, 팔레스타민족당국 수반,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 공산주의로동당 중앙리사회, 월남호찌민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오스트리아조르맹 파익블릭, 캄보자민당 중앙위원회 지도부성원들, 마르틴루터로동당 위원장, 브라질자유조국당 위원장, 라오스안전보위성, 수리아국방상, 몽골대외관계장, 미국 전 대통령과 주재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국가수반, 정당, 단체, 기관들과 각계 인사들, 국제 및 지역구 대표들이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그이께서 언제나 기쁨과 행복 속에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선물을 드렸다.

2월 16일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축을 새기신 50돐, 조선

로동당창건 65돐을 진보적인 류가 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기를 비롯하여 올해에 절세위인을 칭송하는 행사들이 15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연 3 200여회 진행되었다.

집회, 토론회, 좌담회, 강연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5대륙의 방방곡곡에 끊임없이 펼쳐진 행사들에서는 최초의 선군명장, 세계정치원로에 대한 참가자들의 다함없는 신뢰심이 뜨겁게 분출되었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존경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존상이 우려되는 가장 위대한 명도자이시며 인류의 태양이다. 그이의 선군혁명명도가 있어 조선은 그 어떤 대국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보유국, 우상화사상으로 되었다고 격찬하였다.

기네에셀 및 문화상은 김일성동지와의 혁명활동력사는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위업을 받들어 사회주의건설의 선적같은 도대를 마련하고 반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수호전에

서 승리를 떨치셨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력사를 펼쳐 놓으신 절세위인의 영웅사상으로 빛나고있다고 찬양하였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서기장은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위원들과 우우명으로 삼으시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참다운 인민의 명도자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에집트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은 조선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과 대결에서 자기의 자주성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다. 조선은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정당한 권익의 대상을 대하고있는 명도자이시라고 칭송하였다.

한편 중국의 신통화통신, 로씨야의 이따르-따프스통신, 타이신문 《성상일보》, 메히코신문 《우니다나 나세오날》, 적도기내TV방송을 비롯하여 2700여개의 통신, 신문, 방송도 만민의 위인칭송열기를 고조시켰다.

홍콩보도물들은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그날을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없이 초강도행군을 이어가시는데 대하여,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강력한 전정역력을 마련하시어 조선반도와

전정기를 펼쳐놓으신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와 영광을 드렸다.

수리아에서 도서 《김일성선군정치론》이 출판되었으며 브라질공산당, 영국선군정치연구회, 에티오피아청년주재사상연구위원회, 스페인인민조선친선협회,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전략위원회를 비롯한 1000여개의 정당, 단체들과 국제기구들에서 분례전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회세의 선군명장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였다.

한편 중국의 신통화통신, 로씨야의 이따르-따프스통신, 타이신문 《성상일보》, 메히코신문 《우니다나 나세오날》, 적도기내TV방송을 비롯하여 2700여개의 통신, 신문, 방송도 만민의 위인칭송열기를 고조시켰다.

홍콩보도물들은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그날을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없이 초강도행군을 이어가시는데 대하여,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강력한 전정역력을 마련하시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시는데 대하여 앞을 다투어 전하였다.

또한 무한대의 열정과 천리헤안의 예지, 무비의 당력과 강인한 의지, 넓은 도량과 뛰어난 명도력으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우리나라를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우리 인민군대를 그 어떤 강도도 일격에 격파할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향하여 폭풍추진내달리는 조선의 현실은 김일성동지의 선군정치, 맥축적인 령도예술의 결실이라고 칭찬하면서 출판보도물들은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조선의 미래는 더욱 휘황찬란하며 인류사구위업을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병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 만민정승의 대하 끝없이 끊임없이 2010년은 세기의 태양을 우러머뜨는 인류의 마음이 날로 더욱 강렬해지고있음을 실증해준 뜻깊은 해였다.

본사기자

대화는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도

중국의 《해방일보》 21일 부가 《남조선이 끝내 사격, 조선은 왜 재제하였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남조선피괴군부호전방들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연평도일대에서 군사적도발을 감행한데 대하여 전하면서 포성이 울려 지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조였다. 그러나 조선이 군사적대응을 하지 않아 다소 무용이 진정될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리명박 《정부》가 왜 이렇듯 한사고 고집을 부리는지 리해할수 없어한다고 하면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중국국제문제연구기금회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주임은 《사실 그 지는 이미 물러설 길이 없다. 번의 꼬리를 잡은 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책의 타성, 미국과 일본의 지지, 내부

의 감정이라는 세가지 큰 요소로 하여 그는 이미 돌아설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가들은 리명박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로부터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있다.

리명박은 선인자들과는 달리 강경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완화된 북남관계가 이때부터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긴장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정책의 타성은 그로 하여금 이제는 타협을 하지 어렵게 만들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뒤받침도 리명박에게 배심을 더해주었다.

《천안》호사건후 미국은 남조선의 《강경과 대결》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남조선과 군사연합을 빈번히 벌였으며 미국, 일본, 남조선의 외교기구들이 워싱턴에 모여앉아 대조선정책을 토의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지지는 남조선에 적지 않은 《힘》을 주었다. 신문은 조선은 남조선의 사격훈련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보도를 발표하여 조선이 반격을 하지 않은것은 그렇게 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았기때문이며 남조선이 훈련에서 사격수역과 탄약정량을 줄그러니 변경시켰다고 밝혔다.

조선은 이번엔 상당히 재제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보도에서 이번 사건을 통하여 세계는 조선반도에서 누가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이며 누가 진짜 전쟁도발자인가 하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끝으로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도는 대화를 하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미국의 그릇된 처사를 비난

브라질대통령 루이스 이나세올라 다 실바가 20일 중동문제에 관한 미국의 그릇된 처사를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중동평화과정의 중재자로 나서고있는 한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이 이룩될

팔레스타인독립국가창설을 지지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22일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독립국가창설을 지지하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창설될 팔레스타인독립국가와 그의 자주권을 인정하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볼리비아정부는 1967년 중동전쟁이전의 경계선에 기초한 팔레스타인독립국가창설만을 인정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 유대인간사위지역과 팔라스타인 동 팔레스타인과 아랍나라들의 영토를 빼앗았다고 단죄하였다.

일본의 비난을 배격

중국의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일본당국이 새로 채택한 방위위해대책이라는데서 중국군사력의 발전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으로 되었다고 비난한것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러한 비난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중국은 평화적발전의

미국 군사작전 확대시도를 단죄

파키스탄의무성 대변인이 2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작전 확대시도를 단호히 배격하는 자기 나라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이날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에 의해 《반테로》의 명목에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의 지상군사작전을 파키스탄의 서북부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미 행정부의 계획이 판로된것과 관련하여 그는 정부는 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키스탄군대는 자체의 힘으로 나라에서의 반테로작전을 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물부족난

아랍나라들에서 기후변화의 후과와 급속한 인구증가 등으로 물부족난이 날로 더욱 심각해지고있다.

최근 지역정부기구인 아랍환경개발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에 가서 아랍나라 인구 1인당 연간 차체지는 물량은 세계 평균수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일본의 오키야마와 후쿠오카, 지바현들에서 19일 살림집화재사고가 일어나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날 이탈리아의 남부지역에서도 화재로 어린이를 포함한 5명이 사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침략행위를 규탄

팔레스타인 이슬람교 협회 운동 지도자가 21일 날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이스라엘의 침략행위를 규탄하였다.

최근 가지저데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폭공으로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속에서 부상자들이 발생하고 많은 물리적피해

여러 나라들 협조

로씨야와 아르메니아가 22일 경계, 무역분야에서 쌍무협조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21일 중국과 몽골은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벨라리아와 레바논이 21일

유럽 땅을 뒤 흔드는 금융위기

유럽이 전례없는 금융위기에 시달리고있다. 올해 상반기에 그리스가 막대한 국가채무로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중앙에는 유럽중앙은행의 긴급구제금을 받아 위험한 고비를 가까스로 넘겼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스의 파국적인 재정난은 유럽중앙은행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전문가들은 아일랜드와 에스빠냐, 포르투갈 등 유럽의 다른 여러 나라들이 제2의 그리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였다. 그 예언이 지금 현실로 되어가고있다. 이번 차례는 아일랜드이다.

지난 9월 아일랜드정부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는 자기 나라의 금융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500억€의 자금을 지원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렇게 되면 올해 이 나라의 예산적자는 국내총생산의 3.2%에 달하게 된다고 한다. 유럽중앙은행에는 매 성원국들이 예산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이하로 낮추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비추어볼 때 아일랜드의 예산적자는 너무나도 엄청난것이다. 이것은 유럽적으로 일대 소동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화근이 되었다. 금융시장들이 환율파동이 일어나고 유로의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즉

다툼없고도

해왔던 유럽중앙은행이 아일랜드에 긴급구제금을 받을것을 요구해나섰다. 그러나 아일랜드 정부는 자기 나라가 자금을 보장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 때문에는 자기 나라의 체면도 체면이지만 긴급구제금을 받는 경우 많은 회생을 각오해야 하기때문이다. 즉 예산적축감, 일리리축감, 금융제개혁 등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사태가 정전되어, 사회적혼란에 번져지는것은 시간문제라 된다. 그리스의 실례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그리스에서는 구제금을 받은 대가로 대규모인조각이 실시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치지가 더욱 악화되어 이를 반대하는 항의행동이 빈번히 벌어지고있다.

아일랜드수상이 긴급구제금을 받으면 나라의 통화주권을 유럽중앙은행에 나누지 않으면 안된다고 자인한것은 우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일랜드에서는 풀을데로 풀은 자국의 심각한 경제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풀을데로 처하게 된 아일랜드 정부는 하는수없이 최근 유럽중앙은행에 구제금을 요청하였다. 그와 관련한 협상이 유럽중앙은행과 아일랜드사이에서 벌어지고있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이 끼여들고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를 받으면 곧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중흥되게 된다는것은 이미 여러 나라들의 교훈을 통하여 형성된 사실이다. 벌써부터 협상에서는 일련의 문제들을 놓고 아일랜드정부측과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있다.

그가운데서도 초점은 기업체 소득세문제이다. 유럽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아일랜드에 기업체소득세를 올릴것을 요구하고있지만 아일랜드정부는 완강히 거부해나서고있다. 만약 아일랜드정부가 기업체소득세를 올리는 경우 자기 나라의 많은 기업체들이 파산에 직면하게 될뿐아니라 이 나라에 대한 외국의 투자가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는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가 한두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유럽지역으로 율어가고있는것이다. 현재 유럽중앙은행의 많은 나라들에서 세계금융위기의 후과로 채무위기가 격화되고있다. 다음번 구제금의 물양에는 포르투갈과 에스빠냐가 올라 있다.

얼마전 에스빠냐수상은 공식석상에서 아일랜드가 잃는것을 절대로 따르지 않을것이라

약 250만명의 담배인화서 발견

베루의 고고학자들이 최근 나라의 북부지역에서 가장 오랜 시기의 담배인화서를 발견하였다.

크기가 30cm인 이 담배인화서는 지금까지로부터 약 250만년전의 것으로 추측되고있다. 화석의 발견으로 담배의 기원이 밝혀지게 되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나로군의 살인 만행

아프가니스탄주둔 나로군이 23일 파르샤부주에서 나로군 무장집중기가 달린 승용차들에 마구 사격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2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선중앙통신】

미군 파키스탄에 대한 공습 또 감행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서북부지역 상공에 무인기들을 띄워 미사일공격을 가하였다. 결과 7명의 무고한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조선중앙통신】